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 울산편’ 발간 시민의 눈물 닦지 못하는 김두겸 시장의 불통·전시 행정 강력 규탄

- 이재영 원장, “지방정부의 무능은 곧 시민의 삶 파괴… 이번 평가는 실종된 지방자치와 민생 회복을 위한 엄중한 경고”
- ① 민생 외면(버스·의료) ②전시 행정(동상·축제) ③퇴행적 리더십(망언·인사) 등 3대 실정(失政) 지적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1일,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의 시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핸드북(울산) - 울산시민의 눈물」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김두겸 시장 3년 반의 궤적을 추적하며,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킨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 사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분석했다.

이번 핸드북 발간과 관련하여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도덕성은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임에도, 현 울산 시정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이번 평가는 단순히 상대 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무너진 지역 공공성을 회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울산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엄중한 경고이자 제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김두겸 시장의 주요 실정을 세 가지 흐름으로 압축하여 제시했다.

첫째,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안전의 후퇴’다.

보고서는 2024년 12월 단행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

다. 37년 만의 개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배차 간격 증가와 환승 불편으로 인해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조차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시민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은 인구 1,000명당 의료인력이 2.5명으로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울산의료원 설립이 좌초되는 등 ‘공공의료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시민들이 타지로 떠나는 ‘의료 난민’ 신세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둘째, 미래 비전 부재 속 강행되는 ‘전시성 예산 낭비’다.

청년층, 특히 20대 여성의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건설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경제 위기 상황임에도, 울산시는 엉뚱한 곳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추진하다 철회된 250억 원 규모의 ‘기업인 휴상 건립’ 시도와 바다 위 ‘떠오르는 불상’ 구상 등은 전형적인 전시 행정의 표본으로 지목됐다. 또한, 35년 만에 부활시킨 ‘울산공업축제’는 7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콘텐츠 부재와 관제 동원 논란에 휩싸여, 부산불꽃축제 등 인근 도시 축제에 비해 예산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셋째, 시대착오적인 ‘이념 과잉과 불통 인사’다.

보고서는 김두겸 시장의 “복지는 쓰고 나면 똥이 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천박한 인식 수준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부울경 메가시티 탈퇴를 선언하며 울산을 ‘고립된 섬’으로 만든 전략적 오판과, 경영평가 하위 등급을 받은 측근 인사를 산하 기관장(울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임용하기 위해 신규 채용 형식을 빌린 ‘꼼수 알박기 인사’ 또한 시정의 난맥상으로 규정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울산의 퇴행을 멈추기 위해서는 시민을 무시하는 독단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